

식당 사장님을 위한 AI 검색 대비 매뉴얼 2편

네이버 플레이스

Oct 11, 2026 · @박성진

1편에서 구글 카드를 만들었으면, 이번엔 네이버 플레이스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차례입니다. 두 곳이 글자 하나까지 같아야 둘 다 힘을 발휘합니다. 1편보다 짧습니다. 네이버는 대부분 사장님이 이미 쓰고 있으니까요.

왜 네이버도 다시 봐야 하나

1편에서 "AI는 네이버를 못 읽는다"고 했습니다. 챗GPT와 제미나이 얘기였죠. 그런데 네이버는 자기 AI를 따로 만들었습니다.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맨 위에 "AI 브리핑"이라고 뜨는 요약 답변, 그게 네이버 AI입니다. 이 AI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를 읽습니다. 지금 네이버 검색 네 번 중 한 번꼴은 이 AI 답변이 먼저 나오고, 점점 늘어납니다.

그러니까 손님이 오는 길이 두 개입니다.

- **구글 길:** 제미나이, 챗GPT, 구글 검색 → 구글 카드를 봄 → 1편
- **네이버 길:** 네이버 검색, 네이버 지도 → 네이버 플레이스를 봄 → 이 2편

두 길의 매장 정보가 다르면 어느 AI도 확신을 못 합니다. "이 매장 영업시간이 여기서는 9시, 저기서는 9시 반이네?" 하고 다른 매장을 추천합니다. 그래서 2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. **1편에서 정한 걸 네이버에도 똑같이.**

네이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네이버 AI는 매장이 직접 쓴 글을 읽습니다. 소개글, 메뉴 설명, 소식. 사진만 올리고 글이 없으면 AI한테는 빈 매장입니다.

시작 전 준비물

1편에서 종이에 적어둔 표 그대로입니다. 이름, 주소, 전화, 영업시간, 메뉴와 가격, 소개문. 새로 정할 건 없고, **구글에 넣은 것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** 넣는 게 전부입니다.

한 가지만 더 준비하세요. **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.** 스마트플레이스는 매장을 등록할 때 쓴 네이버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모르면 네이버 로그인 창의 "아이디 찾기"부터 하세요. 전에 일하던 직원이나 대행사가 등록했으면 그 계정을 받아야 합니다. 못 받으면 마지막 "막혔을 때"를 보세요.

1단계. 기본 정보를 구글과 똑같이

관리 화면 여는 법 — 인터넷 창 주소칸에 **smartplace.naver.com** 을 치고 엔터. 네이버 로그인. 내 매장 이름이 뜨면 클릭. 왼쪽에 "업체 정보", "리뷰", "소식" 같은 메뉴가 세로로 보입니다. 휴대폰은 "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" 앱을 설치하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

하나 끝낼 때마다 체크하세요.

- ☐ **1. 이름** — 왼쪽 "업체 정보" → "기본 정보" → "업체명". 구글 카드와 글자 하나까지 같게. 네이버는 이름을 바꾸면 심사를 하니 하루이틀 걸립니다.
- ☐ **2. 업종** — 같은 화면 "업종". "한식" 을 고르고, 세부 업종이 있으면 매장에 맞는 것(예: 한정식, 백반).
- ☐ **3. 주소** — "위치". 도로명 주소와 층, 상세 위치("○○역 ○번 출구에서 50m"). 구글과 같게.
- ☐ **4. 전화** — "연락처". 매장 전화 하나. 구글과 같게.
- ☐ **5. 영업시간** — "영업시간". 요일별 시작·끝, 브레이크타임, 라스트오더, 휴무일. 구글과 같게. 임시휴무는 여기서 그때그때 넣습니다.
- ☐ **6. 편의시설** — "편의시설 및 서비스". 주차, 예약, 단체석, 포장, 배달, 유아의자, 화장실, 와이파이. 구글 속성과 같게 켜고 끄기. 하는 것만 켜세요.
- ☐ **7. 결제** — "결제수단". 카드, 현금, 네이버페이, 제로페이 등 받는 것만.
- ☐ **8. 홈페이지** — "홈페이지/SNS". 있으면 주소 넣기. 인스타그램도 있으면.
- ☐ **9. 메뉴** — 왼쪽 "메뉴". 이름·가격·사진·설명. 구글과 이름·가격 똑같이. "**대표 메뉴**" 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3~4개 체크. 설명은 아래 2단계에서 씁니다.

저장 버튼은 각 화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. 바꾼 내용 중 일부(이름, 업종, 주소)는 네이버가 검토한 뒤 반영되고, 나머지는 바로 반영됩니다.

2단계. AI가 읽는 글로 바꾸기

네이버 AI는 매장이 쓴 글을 그대로 보고 손님에게 답합니다. 그러니까 글은 손님이 물어볼 말에 미리 답해 놓는 것이어야 합니다. "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" 같은 말은 AI가 쓸 데가 없습니다. "점심 백반 1인 10,000원, 반찬 6가지, 수요일 휴무"는 씁니다.

글 쓰는 규칙 세 가지

- 1. 손님이 묻는 말로. "어디예요 / 뭐가 맛있어요 / 얼마예요 / 애 데려가도 돼요 / 주차 돼요 / 몇 시까지 해요"에 다 답이 들어가게.
- 2. 숫자와 이름으로. "저렴한" 대신 "1인 10,000원". "역에서 가까운" 대신 "○○역 2번 출구 50m".
- 3. 사진 속 글자는 없는 것. 메뉴판 사진을 올려도 AI는 그 안의 가격을 못 읽습니다. 글로 따로 쓰세요.
- ☐ **소개글** — 왼쪽 "업체 정보" → "소개글". 1편의 구글 소개문을 그대로 붙여넣으세요. 똑같아도 됩니다. 오히려 같아야 좋습니다.
- ☐ **메뉴 설명** — 왼쪽 "메뉴" → 각 메뉴 "설명" 칸. 한 줄씩. 뭐가 같이 나오는지, 몇 인분인지, 맵기는 어떤지. 예: "직화로 볶은 제육과 밥, 국, 반찬 5가지. 1인. 약간 매움."

- **찾아오는 길** — "위치" → "찾아오는 길". 역과 출구 번호, 걸어서 몇 분, 무슨 건물 몇 층, 주차는 어디. 손님이 전화로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.
- **소식** — 왼쪽 "소식". 일주일에 한 번, 사진 한 장 + 세 줄. "이번 주 점심 특선은 ○○, 1인 ○○원, 금요일 까지." 소식이 끊기면 네이버도 구글처럼 "안 하는 매장"으로 봅니다.

메뉴 설명 양식 (○ 자리만 바꾸세요)

○○과 ○○, ○○이 한 상에. ○인 기준. 반찬 ○가지 포함. ○○ 맛.

찾아오는 길 양식

○○역 ○번 출구로 나와 ○○ 방향으로 걸어서 ○분. ○○ 건물 ○층. 주차는 ○○ 주차장(○시간 무료). 버스는 ○○ 정류장 하차.

3단계. 사진과 리뷰

- **대표 사진** — 왼쪽 "업체 정보" → "대표 사진". 가장 잘 나온 음식 사진 한 장. 간판이나 외관 말고 음식. 손님은 매장을 사진 한 장으로 고릅니다.
- **사진 10장 이상** — "사진". 메뉴별 음식, 입구 간판, 내부 2~3장. 구글에 올린 것과 같은 사진이면 됩니다. **글자 박힌 메뉴판 사진은 올리지 말기**. 가격 바뀌면 틀린 정보가 됩니다.
- **리뷰 답글** — 왼쪽 "리뷰". 새 리뷰가 오면 답글. 좋은 리뷰에는 "감사합니다, 또 오세요" 두 줄. 나쁜 리뷰에는 변명 말고 "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, 알려주신 부분 고치겠습니다" 두 줄. 답글은 다음 손님이 읽는 글이지 리뷰 쓴 사람에게 보내는 글이 아닙니다.
- **리뷰 요청** — "리뷰" → "리뷰 요청 QR". 네이버가 QR을 만들어 줍니다. 구글 QR과 나란히 테이블에. "네이버나 구글, 편한 쪽에 한 줄만" 이렇게 붙이세요.

리뷰 이벤트(리뷰 쓰면 음료 증정)는 네이버 규정상 "리뷰 쓰면 증정"은 되고 "좋은 리뷰 쓰면 증정"은 안 됩니다. 별점을 조건으로 걸면 플레이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흔한 실수와 막혔을 때

스마트플레이스에 들어갔는데 내 매장이 없어요. → 다른 네이버 계정으로 등록된 겁니다. 전 주인이나 직원, 대행사. 연락이 되면 "관리자 위임"을 받으세요. 연락이 안 되면 smartplace.naver.com 맨 아래 "고객센터" → "사업자 권한 이전 요청"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네이버가 넘겨줍니다. 1~2주 걸립니다.

매장이 네이버 지도에 아예 없어요. → smartplace.naver.com → "신규 등록".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간판 사진이 필요합니다. 3~5일 걸립니다.

이름을 바꿨는데 "검토 중"이 며칠째예요. → 네이버는 이름 변경을 사람이 확인합니다. 간판 사진을 같이 올리면 빨라집니다.

예약 기능을 켜야 하나요? → 전화 예약만 받으면 안 켜도 됩니다. 켜둔 뒤 안 보면 손님이 예약하고 와서 자리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. 켜면 매일 봅니다.

톡톡, 주문, 쿠폰 같은 게 많은데 다 해야 하나요? → 아니요. 이 2편에 있는 것만 하세요. 나머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.

네이버와 구글 둘 다 매번 고치기 힘들어요. → 가격이나 시간이 바뀔 때만 고치면 됩니다. 바꿀 때 "네이버 → 구글 → 홈페이지" 순서로 같은 날 하세요. 종이에 이 세 단어를 적어 계산대에 붙여두면 잊지 않습니다.

이 매뉴얼에 대해

이 글은 한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매장을 세팅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. 자유롭게 복사하고 나눠주세요. 다만 판매하거나 강의 교재로 쓰지는 말아주세요.

- 1편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편을 먼저 보세요.
- 작성: 박성진 (푸드인프라랩, foodinfralab.com) · 연락: foodinfralab@naver.com
- 외식업이 왜 이런 정보 격차로 돌아가는지는 책 『장사는 있고 산업은 없다』에 썼습니다.